

출자총액제한제 정부 개편안 확정

자산 10조이상 그룹中 중핵기업만 규제

〈자산 2조원 이상 핵심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개편에 대한 정부안으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제외하고 현행 출총제 적용 대상을 이른바 중핵기업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은 14일 오전 7시30분부터 2시간가량 2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 정부안을 확정된 뒤 오후 3시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안을 보고했다.

출자 한도 순자산의 30~40%로 늘려 기업부담 완화...순환출자 도입 안하기로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안을 보고했다”면서 “2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안을 단일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4~15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15일중 정부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안은 공정위가 제시했던 대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환상형 순환출자의 신규 출자를 금지하고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 소속 2조원 이상 기업인 7개 그룹 24개사에 대해 출총제를 축소·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재경부와 산자부가 공정위 대안에 대해 ‘기업부담 완화’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정부안은 순환출자 규제는 제외하고 중핵기업 출총제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출총제가 유지되는 중핵기업은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삼성SDI·삼성전자·삼성전자·삼성중공업·SLCD 등 삼성그룹 7개사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등 현대차그룹 5개사 ▲SK·SK인전정

▲출자총액제한제도=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는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 6조원 이상의 기업에 한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1997년 폐지됐다가 1999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2002년 4월 부활됐다.

유·SK텔레콤 등 SK그룹 3개사 ▲롯데쇼핑·롯데건설·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3개사 ▲GS건설 1개사 ▲한화·한화석유화학 등 한화그룹 2개사 ▲금호상선·삼성상선·삼성중공업·SLCD 등 삼성그룹 7개사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등 현대차그룹 5개사 ▲SK·SK인전정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 중소기업 대상 4만3,000명 30일까지 ‘중간예납’ 해야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권준기)은 2006년귀속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4만3천명에게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중간에납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이자·배당·근로·일시재산·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자 ▲저축·화기·배우·가수 등 자연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중간에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소득자 등은 제외된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여성경제인협 광주·전남지회

오늘 회장·대의원 선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양인희)가 15일 오후4시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제 7차 임시총회를 갖고 제 5대 회장과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날 현재 김항덕(53·현 부회장·여성문화사 대표)씨가 회장에 단독 임추보, 재직회원 과반수 찬성을 얻을 경우 3년 임기의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지회는 또 의결권을 갖는 대의원 14명도 선출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상식 벗어난 ‘광주 기아차 노사’

수출·내수 부진·과업 재산성 위기 불구 아파트·복지센터 건립 등 勞使합의 눈총

수출과 내수부진, 되풀이되는 과업 등에 따른 손실로 재산성 위기를 맞고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대규모 복지사업에 대해 노사가 합의, 지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14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1·4분기 노사협의회 결과 노사대표가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 공장 내부의 주차장 부지 1만9천평에 32평형 직원용 아파트 1천500가구를 설립해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분양하기로 했다. 또 같은 부지에 건립될 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건평 1천500평 규모로 지어져 수영장·헬스장·

실내체육관·볼링장 등을 갖춘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내용에 대해 지역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광주공장의 경우 환율하락과 과업 때문에 지난 3·4분기에만 87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데 노사간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잊속만 참기려’는 처사에 대해 적잖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스포티지 생산라인 증설유보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노사가 ‘복지’에는 선뜻 손을 잡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던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광주공장은 여유분 부지만 제공하고 시공사가 복지센터를 설립한 뒤 기증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향후 사업일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영상황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아시아나 사랑의 동전모이기 14일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유니세프-아시아나 사랑의 동전 모이기’ 30억원 돌파 기념행사에서 강주안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 친선대사 앙드레 김, 안성기씨가 기내에서 모금된 성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 2010년 자동차 생산 1위국 될 것”

기술분야 한국과 대등...글로벌 부품공급기지 급성장

중국이 2010년에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자동차 범용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대등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항구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14일 ‘한국 및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중국의 자동차산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이 글로벌 부품

공급기지화 연구개발기지로 급성장하고 있어 2010년에 세계 최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2015년 일부 미래형 자동차의 개발과 상용화에서 비교우위를 갖게 되며 2020년경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자동차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 격차도 점차 좁혀지고 있다”며 “2010년 범용기술분야의 한·중 경쟁력이 대등한 수준을 나타내고 2015년경 첨단

여행 등 서비스 무역 수치 10개월째 10억달러대 적자

여행서비스 수치적자가 확대되면서 전체 서비스부문 무역수지도 10개월째 10억달러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계속 악화되고 있다.

14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9월 중 서비스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4% 증가한 43억6천만달러였고 수입은 23.2% 증가한 60억1천만달러로 수지는 16억6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9월(10억7천만달러)과 비교해 보면 적자폭이 55%(5억9천만달러) 가량 늘어난 수치로 서비스부문 수지는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째 10억달러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부문별로는 원화강세 등으로 9월 들어서도 해외여행객 증가세가 지속되고 유학·연수가 급증하면서 여행서비스 수치적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억6천만달러 늘어난 11억6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개인정보 누출 조심하세요”

은행 직원 사칭 정보요구 사기범 기승 은행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국제청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심지어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사기범들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용의자들이 전국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카드 연체대금 상환’이나 ‘휴먼에듀 또는 보험료 환급’ 등을 내세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범인들은 국민은행 채권추심팀이나 콜센터 직원, 본부 직원 등이라고 속이고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연체돼 사실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인들은 자동응답전화(ARS)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통화를 유도하고 통화가 성사되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게 되면 통화자의 성명, 직위, 연락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고객의 개인정보가 누출됐다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흥 골드스파·콘도’ 분양 중흥건설·나주관광개발

중흥건설(주)과 나주관광개발(주)은 14일 “나주시 남평읍 일원에 위치한 ‘중흥 골드스파&리조트 콘도’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중흥 골드스파&리조트 콘도’는 연면적 2만1천275㎡(6천436평)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되며 ▲실내 스키장 ‘휴안수’ ▲아와 물놀이테마파크 ‘레인보우수’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마리나센터’ 등이 들어선다. 또 19평형, 28평형, 38평형, 57평형 등으로 구성된 ‘골드레이크콘도’를 갖추는 등 호남권 최고 리조트를 표방하고 있다. 나주호 등 천혜의 자연조건과 함께 광주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있어 광주공항, 광주역(KTX), 호남고속도로 등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문의 062-362-2100. 중흥건설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리조트가 각광을 받고 있다”며 “레저는 물론 비즈니스, 휴양 등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어 투자가치도 높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이지디지텔*	구매 전산관리, 시금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7	062-955-0801
디자인수	인테리어설계시공 현장관리	초대졸/경력3년	1600~1800	11/17	062-610-5585
엘지텔레콤	영업관리 및 영업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7	062-526-9042
*KTES	구매/기획/상품관리/업체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8	1544-7880
*인택PNS	경리/사무관리 직원 채용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1/20	062-972-9435
광림직업전문학교	정규직 교사 및 헬미스터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0	062-529-3000
*태봉	총무, 법무, 구매 사원모집	대졸/경력4년	1400~1600	11/20	062-571-6470
*유평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0	062-228-0222
피디와식산업	영업관리 및 영업지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1/20	062-226-0087
*협동엔지니어링	물류관리직, 영업직, 경리직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0	062-956-8077
*한진기공	기계설계직 기사이직	초대졸/경력4년	3000~3200	11/20	062-953-1642
광주인타임스*	일가, 재무, 회계 경력자 모집	초대졸/경력3년	1800~2000	11/21	062-944-0111
동양생명	(TM1)위보사콜센터 상담원 공채모집(주5일,TV방송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2	02-518-2769
*연수당복분자주	관리부 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1/22	062-943-3788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